

<아시아 공동체론 에세이>

행정학과 김진현

오늘날 자동차, 비행기, 선박 그리고 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 사이의 국경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국의 제품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을 중국인 등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각 나라들의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도 있게 되었다. 즉, 지금은 세계화 시대, 지구화 시대라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교류가 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들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의 협력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특히,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을 이룰 것인지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력, 즉 지속가능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숙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화가 점차 가속화되어 가면서 여러 국가와의 협력 문제는 계속 대두될 것이고 이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대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을 이루어야 할까?

먼저, 천릿길도 한걸음이라는 속담처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첫 시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라는 큰 대륙에 속해 있으며 주변 국가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킨다면 ASEAN 10개국도 포함된다.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첫 시작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중, 일은 예부터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많았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로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지역보다 협력의 필요성이 크고 공감대 형성이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주변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이는 유럽 연합(이하 EU)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선명하게 잘 나타난다. EU는 경제적 공동체를 결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는 유럽 각국의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 조율 그리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많은 왕래와 무역을 통해 그 전부터 비슷한 문화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아시아의 국가들은 각 나라별로 뚜렷하고 구별되는 문화를 형성해왔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한, 중, 일 3국 사이에는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의 역사라는 아픈 역사의 존재가 협력에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제는 역사에 간혀있지 말고 서로의 잘못은 인정하고 화해하여 협력을 해야 할 시기이다. 협력에 있어서의 첫 걸음은 경제적 협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RCEP, CPTPP으로 대두되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 공동체 형성은 각국의 무역을 더욱 자유롭게 하며 각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 공동체 형성으로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통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 사이의 문화적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경제적 격차 또한 줄임으로써 경제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통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 중, 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ASEAN이 이끌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세 국가가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

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중국과 일본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협력의 방식 및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장’의 형성이다. ‘사회적 장’은 나라와 나라 간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각 국가 간의 문화를 이식하고 향유하며 삶의 터전을 한 국가에만 한정짓지 않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뉴질랜드의 한인 이민자와 일본 자이니치 분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들의 교류는 개인들과의 관계로 그치지 않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및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사회적 장’의 형성은 아시아 지역의 협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인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에 기초한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장’의 형성은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은 세계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촉진 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신 본연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올해 수강한 ‘아시아 공동체론’이 큰 도움이 되었다. 평소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깊게 알지는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게 알았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협력과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으며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해 좀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아시아 지역의 협력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강의는 3시간이라는 연강 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질 만큼 유익했으며 수강생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한일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일본 고위 관계자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일본의 입장은 어떠한 지를 이해하고 한국, 일본의 협력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교수님들의 말씀 중에서 앞으로 중심이 될 우리 세대가 아시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이를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함을 알게 되었다. 앞 문단의 글은 사실 수기보다는 레포트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를 넣은 이유는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에 대한 생각을 적을 수 있게 된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공동체론’을 수강하기로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수강 신청을 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아시아 공동체론’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닌 능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업이며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이다.